

주일에배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예배	자녀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0월 23일 (제117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위기가 기회로

얼마 전에 타교단 목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튜브를 통해 내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배 중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고 내가 명령했을 때 '아멘' 했더니 수년 동안 두통에 시달리던 머리가 말짱해졌다는 소식이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최고의 유튜브 수혜자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에 교회 문이 닫혔었다. KBS88체육관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겐 그 문은 더욱 굳게 닫혔었다. 그런데 이때 더욱 활짝 열린 문이 있었으니, 바로 유튜브(Youtube)라는 채널이다.

30년 넘게 타 교단이나 타 교인들에게 이방인 같은 존재였던 나와 우리 교단.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사후의 영'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떠올리기도 싫은 별별 소리 다 들었던 나와 우리 교단. 그것은 더욱 와전되어 어느덧 나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튜브가 열리면서, 더욱이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찾았고,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었다. 그들도 궁금했을 터, 그래서였을까. 나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를 찾는 조희 수는 실로 엄청나다.

사실 그동안은 내 진실을 보여주려 해도 보여줄 수 없었고, 들려주려 해도 들려줄 수 없었다. 이미 그들은 빨간 안경을 써버린 상태라 뭐든 빨강계 보고 있으니 도리가 없었다. 버선목이라면 뒤집어 보여주 수 있었겠지. 그저 변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내 갈 길만 달려왔다. 그들이 세차게 던진 돌을 받아 내 성을 구족했고, 세계로 나가는 주춧돌을 삼았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하시는 듯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위기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단을 신원하셨다.

인내는 뽕고 싶을 만큼 정말 쓰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는 상상 이상으로 달다. 샘플이 여기 있다.

위기인가? 그것은 또 다른 기회다.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 기회는 온다. 단 열매는 씨를 뿌리는 자가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먹는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과 인내, 죽음, 그리고 부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갔던 길이다. 그 걸음, 걸음에는 피와 눈물과 땀이 서려 있고, 진한 추억이 되어 기독교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되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역시 그 대열에서 때로 고난을 받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계속해야 한다.

목사님은 38년 묵화에 멋진 추억담을 쌓

버리고 모든 수욕을 참으며 달려왔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처가살이하며 인내한 것처럼, 아랍이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고, 기성 교단 및 기독교 언론으로부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복돋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견디기 힘든 핍박에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곧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아오셨고, 우리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어찌 영광이 있을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음(롬8:18)을 믿기에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은 지난 수요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멋진 추억담이 된다는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인내하자고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도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스스로를 소개한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지난 38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존심을

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였기에(고후12:10)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음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나 아랍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본 자들의 멋진 추억담이 되어 우리에게 신앙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길을 달려왔기에,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잘 아는 한 사람, 곧 나 이초석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었고, 그 고난의 순간에 나를 도와시고 지키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괴로워할 때 주의 성령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곧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큰

네 형제를 굳게 하라'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기뻐했던 사도들(행 5:41)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인내했기에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난이 아닌 인격적, 도덕적으로 손가락질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절제와 인내, 경건이 있어야 하며, 형제 우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공급해야(벧후1:5~7)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같이 하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1:31)

미리 준비한 자는 담대하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만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겨울채비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이고요. 결혼을 생각하거든 자금도, 집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진학을 하려면, 취직을 하려면 철저히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성전을 짓는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 망하기로 작정한 자다

최근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NLL(북방한계선) 주변에서 방사포 사격을 가하는 등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네들 맨날 그러는데 뭐. 저러다 말겠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꼭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절대 방심할 일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와 더 나아가 평화통일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국방력 위에 경제력이 합쳐질 때 우리의 소원은 이뤄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金正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보다 몇십 배 센 핵폭탄이 이 땅에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때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 막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님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죽었고, 많은 국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피란길에 올라 다른 나라에서 유랑하고 있으며, 국가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국방력을 갖추었다면 이런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하려고 할 때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는 거기

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발하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했다고 했습니다(삼상7).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해온 것입니다. 사전에 막고자 하는 준비기도를 한 셈입니다. 누군가는 코웃음 치며 그럴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잖아.”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 절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 줄

민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은 찾아옵니다.

둘째, 우리는 군사력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알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핵을 앞세워 날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결코 오판할 수 없는 군사대비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자고로 준비는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바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

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흉년이 들어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곧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칠 년의 풍년 동안 소출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넘치도록 쌓았습니다(창41:47~49). 그 결과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애굽은 오히려 양식을 팔고,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대충 준비하거나 ‘이 정도면 됐어.’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꼴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

면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모두 신

앙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대충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기름이 떨어졌고,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잔치 문이 닫히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나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런 자는 당연히 버림을 당하는 것인지를 아예 성경에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 자는 대충 사후를 준비한 자입니다.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고 턱걸이로 천국 입성을 하려던 자 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므로 (철저히, 넉넉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12:40) 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미물인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7~8). ‘개미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찌 너희가 준비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찌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대상22:5).

얼마나 넉넉히 준비했는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일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찌로다”(대상22:14~16).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이 무난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들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넉넉히 준비했어야죠. 손님이 10명 온다고 했으면 15인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기름도 항상 꼭 채워놓으라고 합니다. 어느 때에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Preparing God)이십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준비하시는데 우리도 모든 면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영·혼·육의 성공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항상 적어두는 습관을 기르라

제럴드 로브의 투자 조언을 하나 더 소개 하겠습니다. 그는 투자를 했다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적어두라고 말합니다. 투자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리스크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실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1920년대 초부터 주식을 사거나 팔기 전에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덕분에 그는 투자자로서 수백만 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브의 조언대로 투자하기 전에 먼저 그 이유를 적게 되면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의사결정 뒤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 수익이나 손실이 왜, 어디서 비롯됐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체가 아주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자할 때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면 보고서를 읽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 자기가 처음 내린 결론만큼 중요하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하는 이유를 적게 되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손실 한계도 미리 정해둘 수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예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매도 결정을 내리기가 편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는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과 매도하는 가격 간의 차이인데, 이 차이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투자수익보다 상당히 작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결정, 즉 언제 투자를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할 때 모든 여건이 유리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되지만, 투자를 끝내야 할 때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 답이 명확하든 희미하든 어쨌든 결정해야 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 그래서 주식을 왜 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언제 팔아야 할지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제대로 실현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충분히 실현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은 팔아야 한다고 로브는 강조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처음에 어떤 이유를 갖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종결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팔아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도 온갖 핑계와 함께 붙들고 있는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일기를 써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기다. 그리고 일기를 다시 읽어보며 짚어보라. 누가 나를 도왔고 해를 끼쳤는지 안다. 일기를 쓰면 급성장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To Be Succeeded::

방언기도의 위력

어느 날 밤 머리가 무겁고 뒷목과 어깨가 몹시 결리는 등 몸이 편치 않았다.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고는 곧바로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통성기도를 찾아 집중하여 방언기도를 시작했다. 두 시간쯤 지났을까? 머리와 몸에서 무언가 쏙,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니 무겁고 결리던 증상은 온데간데없고 온몸에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임했다. 크고 작은 염려, 스트레스에 기도가 부족한 틈을 타고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육체에 천국이 임하여(마12:28) 늦은 시간까지 할 일을 다하고 짧은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방언기도의 힘이였다.

또 한번은 아이들의 마음과 육체가 몹시 지쳐보이는데 ‘아차, 가정예배와 기도가 소홀한 탓이구나’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연달아 반복한 후 함께 방언으로 간절히 얼마간 기도하는데 오래간만에 기도를 온전히 드리려니 아이들이 힘들어했다. 이 정도쯤에서 마쳐야 하나 잠시 갈등했지만 승리하려면 끝까지 해야겠다 싶어 아이들과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천사가 기도를 돕는

게 느껴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더니 아이들도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다. 예배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없던 아이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얼굴빛이 환해지며 뛰어놀기 시작했다. 마음이 다시 밝아진 아이들의 입에서 “엄마,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해요!”라는 고백이 나왔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두려워했던 자가 담력을 얻었고, 구변과 학식이 없던 자가 놀라운 지혜와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성령을 힘입은 방언기도의 결과였다. 우리 목사님도 “나는 방언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고백하신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능력이 나타나시는 이유다.

영·혼·육의 모든 문제 앞에 힘써 성령으로 기도하여 현실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 오늘의 메시지 ::

소중한 친구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동작을 따라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좀 더 빠른 느낌이었다. 사실 나는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엔 빨리 흡수하는 편이다. 내 친구는 좀 느린 편에 가까워서 동작이 빠르진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응원하며 운동을 다녔다.

시간이 어느덧 3개월쯤 지났을까? 우린 둘 다 정체를 맞았다. 아무리 해도 발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했다. 코치 선생님에게 매주 똑같은 동작을 배우는 우리가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의논도 해보았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의견이 달랐다. 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며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늘렸다. 나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운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세상에나! 내 친구는 본인의 문제점을 스스로 계속 파악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하더니 2주 전과는 다른 발전된 모습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제자리였다. 물론 그동안 마음은 좀 편안했었다.

사실 내 친구와 나는 매번 그랬다. 내 친구는 처음엔 많이 어설프지만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반면에 나는 토끼처럼 처음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 정도면 되겠지’ 싶어서 여유를 부리다가 거북이 성향의 친구보다 늘 뒤처졌었다.

그래서 내게는 이 친구가 꼭 필요하다. 그 친구는 나를 반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더 고맙고, 이번에도 덕분에 다시 도전하게 한다.

이인영 집사



:: 소망의 언덕 ::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얼마 전에 있었다. 이 축제는 불꽃과 음악 레이저 연출이 결합된 아시아 최고의 불꽃쇼로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를 보기 위해 여의도를 찾는다. 이번 불꽃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만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이 불꽃축제를 즐기기 위한 최고의 3대 핫스팟 중 한 곳이 현재 교육관 바로 옆에 위치한 노랑진 수산시장이었다.

예배 뒷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불꽃축제를 직접 보려고 나 역시 교육관을 나서서 수산시장 옆 도로로 걸어나갔다. 큰 폭발 뒤에 조용히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각양각색의 스카이 아트를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의 하늘을 향해 얼굴을 올리고 있는 모습 또한 그에 못지않은 장관이었다.

그런데 그 불꽃놀이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건 어둠을 팔러 나온 어느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불꽃축제에 뻗겨 있을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눈과 귀는 손님이 될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

어있다. 불꽃 한발이 다시 쏘아 올려질 때면 폭죽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탄성소리도 더욱 커졌지만, 어묵장수는 눈을 들어 불꽃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폭죽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커녕 어묵을 주문하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더욱 귀를 기울인다. 일찍부터 나와서 목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불꽃축제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 오직 그 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묵을 사먹을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환호하는 것에 함께 환호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중 구원 얻을 만한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 내 눈과 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목사님께서 참으로 본을 보이셨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몸소 보이셨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현승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글꾼의 신앙 ::

행복한 이별

어느덧 가을이 깊어 색색의 나무들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이때, 오랜 친구 같았던 집사님이 일본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마음의 허전함이 더합니다.

일본인 남편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병들어 누우셨을 때에도 지극 정성을 다해서 손발이 되어 병수발로 헌신하신 집사님은 주변에서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고 모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치매로 인해 사람도 몰라보았지만 묵묵하게 당연한 듯 돌보셨고, 결국엔 시설에 입원하셨을 때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만나기를 3년, 남편분이 소천하셨는데 정말 놀랄 일은 남편이 집을 처분해서 한국 가서 살라고 집사님께 남겼고, 나머지는 전처의 자식에게로 생전 증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증일 때 미리 알고 이처럼 재산정리를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상속세까지도 별도로 통장을 해놓으셔서 주변의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전처의 따님 두 분도 혼

쾌히 한국 가서 잘 사시라 서로에게 감사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들을 교회에 주고 가신다고 가져왔는데, 내가 성경책들을 살피다가 그 안에서 소천하신 남편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쫘았을 때 집사님의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편지와 남편분이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집사님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돌려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언젠가 있을 이별에 대비해서 정신 있을 때 자신이 간직했던 사진과 정말 멋있고 행복했었다는 편지를 남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땅으로 가게 하였더라”(창25:1~6).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이처럼 성실히, 묵묵히 열심을 다하신 집사님은 오래전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식당에서 우리 서동경에 수증심교회가 개척을 했고,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까지 섬세하게 다 상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다들 웃으며 남편에게 잘해야겠다며 주님께 감사드렸고, 마음 아픈 이별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의 결과로서의 행복한 이별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말씀과 이 일이 겹쳐져서 잊지 못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멋진 이별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 남편의 세컨드 성경책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아들의 엄마로서 좋았노라고 써서 넣어둘까 합니다. 나중에 편지를 손에 쥐고 주님께 감사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라고...

서동경예수증심교회 김경숙 목사

Good News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던 배 안에 마실 물이 떨어져 모든 선원들은 탈진한 상태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배 한 척이 나타나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있는 힘을 다해 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맞은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사방 천지에 맑은 물이 있는데 무슨 물을 달라는 거요? 물통을 내려서 그 물을 퍼서 마시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아마존강의 하구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서 그들은 이미 맑은 물이 흐르는 강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줄 알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목이 말라 갈급해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만 결코 만날 수가 없으며 그들이 만난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미는 따뜻한 손길 뿌리치지 말고 잡기만 하면 됩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 같은 자가 되지 맙시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겸손과 순종

2021년 12월, 30년가량 서울에서의 학원업과 유학원 업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며 경주 안강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망막이 망가져서 더 이상 학생들 지도를 할 수 없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 창업은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조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터디카페 가맹주의 추천으로 덩석 시작한 경주 안강 지역은 원유가 매장되지 않은 곳에 정유 공장을 만들고, 석유를 생산해 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안강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도대체 주님,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요?’라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안강에서의 사업 목표는 백 개가량의 스터디카페들 중 매출 1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성정을 과약하신 공사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이 저를 그냥 두면 화병

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니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셨습니다. 안강 공사비 지출로 다시 시작할 공사비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자리를 잘 선택하면 백 개 이상의 스터디카페 중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경주 중심가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분의 도움으로 백 평가량의 스터디카페를 다시 창업했습니다. 안강과는 달리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백여 개 넘는 스터디카페 가운데 전국 매출 1위를 여러 번 달성했습니다.

겸손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파악했을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면 먼 광야 길을 돌고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요. 결론 겸손했고 표면적 순종으로 살아온 세월에 대한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나야 나’를 외치면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에 치어서 허덕거렸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다짐하지만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머리에 가득한 나의 생각으로 움직인 어리석은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나의 의지와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둔다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기도로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더니 곤한 인생의 순간들이 평안의 시간을 선물해주는 것 같습니다. 순종도, 겸손도, 기도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오자유 집사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느 날 갑자기 김영숙 전도사님으로부터 방배기도처로 오라는 전화가 왔다. 당시 방배기도처에서 성경공부를 한두 번 했기에 성경공부를 하는가 하고 하던 일들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약속 시간에 갔었다. 방배기도처에는 이초석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약 40명 정도의 쟁쟁한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구에서 나처럼 전화를 받고 온 사람이 7, 8명 정도였다. 분명 성경공부는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초석 목사님이 한 사람을 단에 세우고 예배를 인도해 보라 하셨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라고 하여 왔는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해보라 하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초석 목사님이 그만하고 내려가라 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구역예배 인도하듯이 하라 하셨다. 나 역시 당황하며 단에 섰다. 내 오른쪽에는 목사님이 감독관으로 의자에 앉아계셨다. “기도하겠습니다.”하고 기도를 했다. “찬송 495장 하였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했다 치고.” 하셨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또 “했다 치고.” 하셨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몇 절까지라 말하지 못하고 읽었다. 적당히 읽고 말씀을 전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이초석 목사님도 부자시니까 천국 못 간다’고 하니 이초석 목사님이 잘한다 하시며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냐?”고 하셨다. 그때 나는 토끼가 용궁에 갔다 온 심정으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초석 목사님이 찾으신다고 빨리 가자는 것이었다. 이초석 목사님은 별말씀이 없으셨고 이순종 전도사님과 방향이 같아서 돌아오는데 떨리지 않더냐고 물으셨다. “안 떨리다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전도사님 모셔드리고 일터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났을 때 전도사님이 내가 구로교구 전도사로 갈 것 같다고 하셨다. 그때 나의 신앙은 돈 많은 장로가 되어 교회당 짓고 좋은 차 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이초석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쓰신다면 쓰임 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다르니까.

이승효 목사

